

장학월보

2010
제205호(통권424호)

3

- 장학특집 / 맞춤식 학력향상
- 교육정보 / 2010 달라지는 경남교육
-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경상남도교육청이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합니다.

190개 내외 학부모회에
300만원~60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 ◆ 지원규모 학부모회당 300만원~600만원 내외
- ◆ 지원내용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참여 활동
- ◆ 지원방법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 공모
- ◆ 공모시기 2010년 2월 5일 ~ 3월 23일
- ◆ 문의처 평생직업교육과(☎.268-1262~7)



‘학부모 학교참여’ 라디오 캠페인 방송중

- SBS ‘세상을 만나자’ (10:26) / FM 103.5MHz, AM 792KHz
- TBS ‘서울광장’ (7:49) / FM 95.1MHz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3 제205호(통권 424호)



02 권두언
04 장학현장
06 교육칼럼
08 특집 /
맞춤식 학력향상

24 전문가 초대석

28 수업기술 나누기

34 교육정보

48 이색 교육현장

54 참여마당

59 향기나는 서가

62 음악이야기

64 지상갤러리

- 날마다 생기로운 경남교육을 기대합니다 / 교육감
- 좋은 만남 만들어 가기 / 임성택
-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 · 행복학교 문화 조성 / 김환옥
- 배움과 삶의 재미가 쏠쏠한 365일 / 양해석
- 배우는 기쁨이 넘치는 아라 교육 운영 / 이종길
- 관심의 깊이와 학력향상 / 장현재
- 친한 친구교실(Wee Class)와 연계한 학력향상 방안 / 강신화
- 2010 『맞춤형 학습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만들기 / 전광숙
- 멘토링제를 활용한 기초미달학생 구제 / 백보이
- 건강상식·유방암의 증상과 치료 / 장석원
- 연금상식-건강관리시스템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은행 찾아 3만리'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박진영
- 동화와 함께 만나는 감성이야기 / 박영인
- 자유 탐구 이해와 지도 방법 / 염성욱
-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하이라이팅기법 / 고이현
- 2010. 달라지는 경남 교육 / 이병만
-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만큼 달라집니다 / 김영희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 교육 / 정운영
- 시대 변화에 따른 해외파견 한국교육원의 새로운 시도 및 과제 / 윤유숙
- 붕어빵 같이 모두가 똑같은 학교교육은 이제 그만 / 오진환
- 20년 후 나에게 보내는 약속 - 졸업식 / 이재철
- 교 원 - 스프링 폭스 신앙(Spring Fox God) / 조경래
- 학부모 - 좀 더 밝은 사회공동체를 희망하는 소박한 비람 / 신영하
- 학 생 - 우리 엄마 / 홍태형
- '아이의 사생활'을 읽고 / 정정규
- 사물(事物)에서 사물놀이를 찾다. / 박미향
- 땅끝에서 / 심약방
- 강둑에서 / 이동림

▶ 표지사진 - 김형기(삼계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4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3월 16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안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3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 :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 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김주수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배정철
- 편집위원 :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날마다 생기로운 경남교육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경남교육가족 여러분!

활기찬 경인년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입학한 아이들이나 한 학년씩 진급한 아이들은 큰 기대감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학교에 올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알찬 수업 계획과 활동으로 일년 내내 생기로운 경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고사성어 중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게 되는 뜻으로 중국 은나라 탕 임금의 사용된 반명(盤銘)이란 청동대야에 적혀있던 글입니다.

아마도 탕 임금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이 글씨를 보고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고대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현대인만의 과제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불편해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싹을 스스로 자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의 일상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오늘의 일이 어제와 다르며, 또 올해는 작년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일일지라도 그것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일상의 일들도 신비로워 기쁨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고 잘 아는 일에도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새봄을 맞아 날로 새로워지는 경남교육을 기대하며, 경남교육가족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경 상 남 도 교 육 감



01—



02—



04—



03—



05—

- 01 진주교육청 - 교직원 어울림 한마당
- 02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 경북영천교육청 방문
- 03 김해도서관 - 동화사랑방
- 04 마산교육청 - 진단평가 및 학교자율화연수 모습
- 05 창원교육청 - 창원교육 2010 설명회



06—



08—



07—



09—

- 06 함안교육청 - 퇴직교원 간담회
- 07 사천교육청 - 창의·인성 교육 설명회
- 08 통영교육청 - 교육과정 워크숍
- 09 밀양교육청 - 제7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참가

좋은 만남 만들어 가기



임 성 택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때가 되니 물러가고 어느새 새봄의 기운이 천지에 가득 합니다. 늘 만나던 사람들도 전에 없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무언가를 도모하는 듯한 눈빛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엇을 잘 할 것을 욕심내기 보다는 실수가 적은 하루하루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인생살이의 크고 작은 실수는 좋은 만남을 만들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데, 올해는 사람 판단하기를 특별히 조심하기를 다짐합니다.

감명 깊게 읽은 글 한 편을 인용합니다.

공자에게는 사랑하는 제자 안회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누구보다도 더 믿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안회와 함께 먼 길을 여행하는데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일행은 며칠을 굶었습니다. 안회는 자기 배 굶는 것보다 스승께서 끼니를 거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하여 사방에 다니면서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모처럼 맡아보는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기도 하였지만 제자의 마음이 가상하여 공자는 안회가 밥을 짓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회가 솥뚜껑을 열더니 밥을 떠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공자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인의예지를 그토록 가르쳤거늘 저부터 먼저 먹다니…….’ 공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안회는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밥이 되었나 하여 솥뚜껑을 열고 보니까 얻어온 쌀이라서 그런지 수수가 몇 알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밥을 스승님께 그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수수를 골라 먹었습니다.”

공자는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때에 공자가 남긴 말입니다.

“사람의 눈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또 마음을 의지하여 살지만 내 마음도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아니, 믿어서는 결코 안 될 때가 있다.”

새 학년도가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선생님은 학생을 나름대로 인상지게 씁니다. 즉, 착한 아이, 불량한 아이, 공부를 잘 하는 아이, 공부를 못 하는 아이, 적극적인 아이, 소극적인 아이 등등.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인상짓느냐에 따라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의 오류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다양한 장면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항상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객관적인 관점과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자의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때로는 내 마음도 믿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만남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단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 · 행복학교 문화 조성



김 환 옥
김해합성초등학교 교사

가야의 얼이 살아 숨쉬는 김해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김해합성초등학교(교장 이재돈)는 개교 100주년의 전통과 역사가 서려있는 명문학교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김해시 개발계획에 따라 그 중심이 신도시로 옮겨감으로써 주변의 생활 환경이 나빠지고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자, 일부 지역주민들의 입에서 폐교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난 날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침체의 늪에 빠져 들게 되었다. 전교생 500여명 가운데 144명(약 1/3)이 기초수급대상 아동으로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교육복지투자지원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 지역에 비하여 결손 가정의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력마저 뒤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빛바랜 건물과 낡은 교육시설 등으로 인해 교사들마저 기피하는 학교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본교는 김해합성초등학교의 옛 명성을 되찾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김해합성 VISION 2010' 프로젝트를 제창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에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大合成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가야도에체험교실을 비롯한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김해합성교육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교육의 혼불을 태우고 있다.

1. 이렇게 실천하였습니다.

가. 합성누리봄공부방 운영

본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듬뿍 담긴 '합성누리봄공부방'을 개설하여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

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학력향상은 물론, 명품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지도내용	비고
국어·수학반	전교생	방학중 10일간 1일 4시간	1학기 보충학습, 2학기 선행학습	179명
영어영재반	4~6학년	연중 (매주 2회 2시간, 방학중 10일간 1일 4시간)	Speed Reading, English Land	78명
수학영재반	"	"	수학 심화과정, 수학아카데미	50명
생활과학교실	4~6학년	겨울방학중(10일간 1일 4시간)	과학실험, 체험, 탐구중심 프로그램	20명
학습부진아반	1~6학년 학습부진아	연중 (주1회 1시간)	읽기·쓰기, 기초수학, 보충학습 프로그램	학년별 해당학생

나. 학습보조 인턴교사 활용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5명 배치되어 3~6학년 학생 중 기초학습부진아와 교과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시간대에는 기초학습부진아동의 학습보조 도우미로 활동하고, 교육과정 운영시간 이후에는 교과학습부진아동의 보충학습 도우미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 1) 교육과정 운영시간 이후에 활동하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중에서 1과목씩 선택하여 대상아동에 대한 보충학습 지도를 하였고,
- 2) 3~6학년 교육과정 시간대에 맞춰서 1:1 맞춤형 학습도우미로 활동하였으며,
- 3)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도움을 받는 대상학생은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였다.
- 4) 특히, 과목별 중복 교과학습부진아일 경우에는 심각한 교과목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보충학습의 기회를 가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운영하였다.

다. 복지대상아동 공부방 운영

복지대상아동의 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으로 기초학습지도, 과제해결 및 일기지도 등을 통하여 복지대상아동들의 정서안정과 학력향상은 물론, 이탈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학교와 연계하여 노력을 하였다.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강사 및 지역기관	비고
행복학습실	저소득층 기초미달학생	월~금요일 (주5회)방과후	행복학습실 강사	15명
지역사회 연계·협력	저소득층 기초미달학생 다문화가정자녀 집중지원대상아동	"	드림스타트, 화현동 자치센터 구산사회복지관, 김해 YMCA	32명

라. 학습부진아 이력관리카드 활용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담임책임하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습부진 요인을 파악하여 개인별 장기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하기 위하여 기초학습부진아 이력관리카드와 교과학습부진아 이력관리카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장기지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력관리카드 항목에는 학습부진아 영역, 학생 기본인적사항, 학생에 대한 정보, 학습부진 요인 파악, 누적 학습 현황, 학력수준 분석, 개인별 장기목표 및 개인별 장기지도 계획 등이 나타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담임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마. 학부모 언론 홍보활동

‘합성비전2010’ 프로젝트 수행과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행복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학교의 노력과 결실을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홍보하여 되살아나는 김해합성초등학교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는데,

- 1) 학부모 교육홍보 : 가정통신문(12회), 학교홈페이지 게시(12회), 학부모간담회 연 2회, 교육과정 설명회 연 2회
- 2) 언론매체 교육홍보 : 경남매일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연 11회 게재

바. 심리검사 및 상담활동 실시

1)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담임선생님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독특한 선호학습전략을 탐색하고, 지도방법을 알게 하여 아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학력향상 및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 대상 : 3~6학년 380명 전원
- 실시일자 : 2009년 4월 15일
- 심리검사 항목 : 신체운동적성, 논리수학적성, 공간적성, 언어적성, 대인 적성, 대내적성 등 총 7개 항목
- 심리검사 개발처 : 서울대학교 도덕심리검사연구실 개발 「다중적성검사」

2) 상담활동은 학습부진 요인을 파악하여 학력향상의 효과를 높이고, 어려운 상황이 나 여건에서 대화를 통한 사회적 기술 습득의 기회와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 집단상담활동은 5학년 116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 김해교육청 상담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하였고,
- 개별상담활동은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 5명을 활용하여 학교 상담실에서 연중 월~금요일 담임추천이나 신청아동 12명에게 집중 상담활동을 하였다.

2. 이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전 영역에서 보통 이상이 98% 이상이므로 학교교육 만족도와 학교장 리더십 만족도 등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가. 학교자체에서 실시한 학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습부진아 8명 중 50%인 4명의 성적이 향상되었고, 교과학습부진아 58명 중 60%인 35명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08학년도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이 10.24%인데 비해 2009학년도에는 1.14%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9.1% 줄어들었다.

다. 학습부진학생 지도반 운영으로 1, 2차에 걸쳐 기초학습부진아 5명은 구제되었다.

라. 수학영재반 : 10월 10일(토) 경남초등수학경시대회 참가 5년 엄성환 입상(초등남학생 부문 은상 수상)

마. 영어영재반 : 11월 14일(토) 김해교육청 주관 영어 원서읽기 경시대회 입상 장려상 수상(56개 초등학교 중 5팀)

바. 영재교육원 : 1월 4일(월) 김해교육청 영재교육원 5년 엄성환 합격(초등과학 부문) 사. 경남초등도예실기경진대회에서 동상 2명, 장려상 19명 수상

아. 개별상담활동 결과 지난 해 무단가출 9일인 아동이 올해는 가정사정으로 1일 결석하여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자. 합성누리봄공부방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학생, 학부모의 96%가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며, 특히 방학중 실시하는 국어·수학반이 인기가 높았으며, 내부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우리 김해합성교육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김해합성 VISION 2010’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단기 발전 계획을 완성하는 한편,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 가고자 하는 응골찬 교육의지를 심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해합성 VISION 화이팅’

배움과 삶의 재미가 쏠쏠한 365일



양해석
산청 신천초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인 초등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저학년부터 누적된 교육과정의 결손으로 기초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습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교과학습 부진 학생은 소극적이거나 주의 산만한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농촌의 6학년 소규모학교는 부모의 맞벌이와 결손가정의 자녀가 많아 가정에서의 연계지도가 어렵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방학도 없이 연중 365일 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하여 부진학생에 맞는 학습 내용과 지도 방법을 선택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펼치며

먼저 교과학습 부진학생 실태분석을 통하여 3학년을 제외한 전학년에 1명씩 교과 부진아동이 선정되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학습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습유형검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학습유형을 분석하여 학생지도에 참고하였으며 학부모 및 학생과의 상담을 통한 학습부진요인을 파악하여 가정환경 조사서 작성 활용과 병행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 계획을 세워 아래와 같이 실천하였다.

담당교사가 아침 자율학습 및 점심시간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인수 학습의 장점을 살려 수업 중 개별화 교육을 하였다.

자성예언을 통한 개인별 학력 향상 카드를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기초학습 부진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1·2학년 기초학력 정착 책임지도,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개인별 지도카드 작성 활용, 또래 도우미를 활용한 협력체제 운영,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활용하여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을 보조케 하였고, 사전 평가 예고제 실시와 평가 결과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꾀하였다.



학기 중 학습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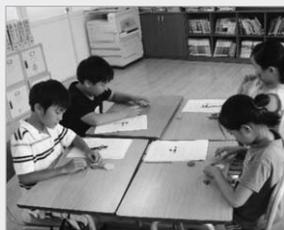
학기 중 창의수학교실



정규수업 중 개별화교육



방학 중 학습교실



방학 중 창의수학교실



아침자습, 점심시간 특별지도

3. 나가며

1:1 맞춤형 교육, 자성예언을 통한 개인별 학력 향상 카드 활용, 인턴교사 도우미 등을 통하여 교과 학습 부진학생 5명은 학년말에 모두 구제가 되었다. 철저한 지도 계획 수립과 1:1 맞춤형 지도방법은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학습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습 부진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에서만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노력과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가정 학습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좀 더 빨리 기초 학력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배우는 기쁨이 넘치는 아라 교육 운영



이 종 길
함안 아라초등학교 교장

1.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실력이 쑥쑥!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이 넘치는 학교’를 기본 방향으로 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 학력과 교과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력 정착과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마련하여 실력이 Change-up 되도록 노력하였다.

가. 기초학습 특별 보충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2009. 05. 18 ~ 12. 31 (48시간)
- 시기 : 주 2회 - 월, 화
- 대상 : 4학년 읽기(2명), 쓰기(1명), 셈하기(3명)
- 지도교사 : 학습도움반 교사

나. 교과학습 부진학생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2009. 05. 18. ~ 2009. 12. 31. (48시간)
- 시간 : 주 3회 - 월, 화, 수요일 (50분씩)
- 장소 및 지도 교사

학년	요일	과목	학생수	지도교사(장소)	시간(50분)	학년	요일	과목	학생수	지도교사(장소)	시간(50분)
2학년	월	국어	10	김00(2-2)	13:00~13:50	5학년	월	국어	7	강00(5-1)	15:10~16:00
	화	수학	8	조00(2-3)			화	수학	12	김00(5-2)	
3학년	월	국어	1	정00(3-3)	14:20~15:10	6학년	수	영어	15	영어강사(센터)	14:20~15:10
	화	수학	2				월	국어	1	김00(6-2)	
4학년	월	국어	9	배00(4-2)	14:20~15:10	화	수학	6	송00(6-3)	15:10~16:00	
	화	수학	14	노00(4-3)		수	영어	3	영어강사(센터)		
	수	영어	10	영어강사(센터)							

2. 영어교육 강화로 실력이 쑥쑥!

학부모와 학생들의 영어교육 강화욕구를 반영하여 영어말하기 대회, 여름·겨울방학 영어 캠프, 영어특별보충반의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신장시켜 농촌학생들의 영어 Chang-up 되었다.



3. 배우는 기쁨이 넘칠때까지

다양한 개별화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기본학습 강화로 실력이 배우는 기쁨이 넘칠때까지 2010학년도에도 아라 교육은 계속될 것이다.

관심의 깊이와 학력향상



장 현 재
남해초등학교 교사

2010년 2월 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점검을 받게 되었다. 대개 점검이라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기 쉽지만 내심 좋은 쪽이어서 안도를 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 원인을 알고 치료하자

2008년 10월,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8.58%, 각 교과별 기초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7~9%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사회, 수학, 영어과의 성취수준이 낮았는데 그 원인은 지금까지 학습활동부진 누적과 단위시간 수업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2009년 본교는 학교경영의 최상위 목표를 학력향상에 두고 학교교육과정 계획 및 학급교육과정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학력평가 회수 증대와 보상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학력향상을 짧은 기간에 결실 보기란 힘든 일이지만 원인을 알고 처방을 잘하면 상황은 좋은 쪽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학력평가 실시횟수를 연 6회로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도 있었지만, 학력의 발전이 두드러진 학생에게는 조회시간을 통하여 발전상과 우수상을 시상하고 참여 분위기가 더 높아지자 학부모들은 수고를 하였다.

◎ 학력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자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사간 눈맞춤은 중요하다. 학력향상 계획에 의거 새로이 구안한 『남해초 학습알림이』를 통해 교과학력실태, 행동특성을 기술하여 평가가 끝난 직후 각 가정에 보내고, 담임에게 바라는 란을 통해 부모님의 바람을 파악하는 알림이는 학생개별 지도자료로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 학력향상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 부진학생 지도 방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3월초 진단평가를 실시하면 학습부진학생이 파악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는 학년 초에 나타난 부진학생이 학년말 보고시엔 구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듬해 신학년도에 진단하면 또 나타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당장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기 위한 현상에서 기인 된 것으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진단체제를 수립하여 점진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업동기검사와 학습기술 검사를 실시하여 처방지도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 효과를 본 공부방과 인턴보조교사 활용

방과후 부진학생지도는 다른 업무와 겹쳐 교사들이 지도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래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방학중 주3회 3시간씩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실시한 인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과후공부방은 참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학원에 가는 것은 쉬워하지만 방과후공부방 참가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일대일 지도를 하자 학력향상은 빛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참가하기를 희망하였다.

남해군 학력향상 프로젝트의 특징은 별빛 공부방이다. 축구부 학생들의 학력은 낮은 편이다. 2009년 5월부터 주 3회 오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소속 학년 교사가 윤번으로 지도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2학기 중간학력평가 이후 학력우수상과 발전상을 수상하는 학생들도 나왔고 학습흥미와 관심도가 높아졌다.

◎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위해 생각해 볼 일은

학력향상은 실적과 성과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 점을 인식하고 학습자의 학습장애원인을 기재하는 개인별 차트를 마련하여 출발과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누진 지도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일은 학습장애의 요인을 분석하여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습과 행동에 문제요소가 있는 학생들을 담임교사가 아닌 상담교사가 연계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지도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 학력향상을 위해 하고 싶은 말

- 행사로 인한 교과수업결손을 최소화하자.
- 허용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엄격하게 지도하자.
- 학습도움실 활용을 통하여 부진학생 지도 자료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자.
- 부진학생지도는 일대일 지도가 최우선 이다.
- 인턴보조교사도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잘 알아야 한다.

친한 친구교실(Wee Class)와 연계한 학력향상 방안



강 신 화
진해 안골포중학교 교장

안골포중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지역의 배후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일본수군의 주력대를 물리친 안골포해전이 있었던 역사적인 곳에 세워진 학교이다. 안골포의 푸른 파도를 닮은 진취적인 기상과 안골포 비전(Vision)을 품고 도약하는 꿈의 학교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역동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본교는 지리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경계지역에 있어 학생의 이동이 빈번한 편이며, 우수학생은 부산지역으로 유출되고 전입학생 중에는 부적응학생이 많아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아울러 심리적·내면적 요인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습부진에 대한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본교는 2008학년도부터 Wee Clas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학기 초에 표준화 검사도구나 교사의 수시진단으로 학생들의 학습저해요인을 진단하였다. 또 학기 중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업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이들에게 Wee Class의 학습클리닉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관리하였다. 특히 학기말에는 1년간 누가 기록·관리된 「부진학생 개인별 카드」로 학습정보를 분석하여 교과담당(담임)교사와 공유하고 상위학년 진급시 담당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학습성취감을 부여하기 위해 「학급별 교육성공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였고, 담임교사가 「세우미 학습장」 활용 등 학생 개인별 학습 성취에 대한 동기 관리를 하였다.

수준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학습부진학생의 학력에 대한 인식정도와 학력향상을 위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교과학습부진학생 개별화 지도계획을 세우고 학년별로 1~3개의 교과부진반을 편성하여 7교시 또는 8교시까지 교과별·수준별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였다. 또 수준별 학급에 맞는 학습목표 제시,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의 제시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학생 개개인의 부진요인(영역)을 고려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개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흥미를 보이는 다양한 수업기법을 활용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담임교사가 주1회씩 4주간 학습상담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사후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본교학생들의 '학습습관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09년 6월 1일부터 7교시를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으로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본교교사가 지도하는 교과종합반(5개교과)을 매일 7, 8교시에 운영하였으며, 수학·과학 영재학급을 운영하였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2주 동안 1일 4시간씩 '디딤돌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교육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향상대책(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사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학교장의 온화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리더십으로 전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교과별 책임지도제를 시행하여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학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수업시간에 교과서·공책 가져오기, 필기하기 등을 실천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학부모의 학력향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3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의 학력향상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되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학부모가 늘어났다.

또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교의 상담 인력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와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가 필요한 상담지원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학생이 행복한 학교 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디딤돌공부방 운영 장면



학습클리닉 운영



지역사회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상담활동

2010. 『맞춤형 학습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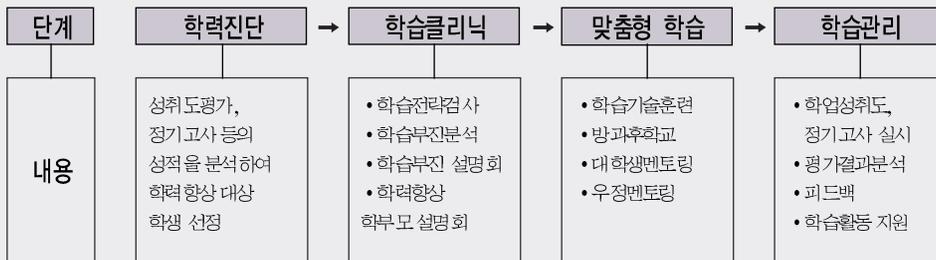
전 광 숙
마산 호계중학교 교장

추진 목적

-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뒤처지는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적용하여 학력향상을 꾀하여 학교 교육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
- 학생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고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학교상 정립
- 기초미달 및 학력격차 해소로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를 만들어, 누구나 더 배어 배우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추진 내용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분석하여 뒤처지는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습전략검사를 실시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등을 파악해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클리닉을 제공한 후 학기 중 방과후학교, 방학 중 특별반, 대학생 멘토링 등을 연계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학업성취도평가, 정기고사의 평가 결과를 분석·피드백하여 지속적인 학습관리를 한다.



1. 학력 진단

학년	시기	진단도구	진단내용	진단결과
전학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학업성취도평가 • 2009. 학년말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과학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학력향상 대상학생 기준을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5반, 1·2학년 3반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

2. 학습클리닉

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학습변인 파악

학습전략검사(MLST: Multi-demantional Learning Strategy Test)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과 행동적 특성에 대해 파악하며 학습자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습전략에 있어서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클리닉을 제공한다.

나. 학습부진 설명회

뒤처지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전략검사 결과 학습부진의 심리적 요인과 변인 등을 설명하고, 맞춤형 학습의 방향을 설명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맞춤형 학습을 실시한다.

3. 맞춤형 학습

가. 학습기술 훈련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학습기술(자기관리기술, 수업참여기술, 정보처리기술, 시험치기기술, 학습동기 부여)을 훈련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

나. 반디학교(방과후학교) 운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를 종합반 형태로 연중 운영

다. 학기 중 대학생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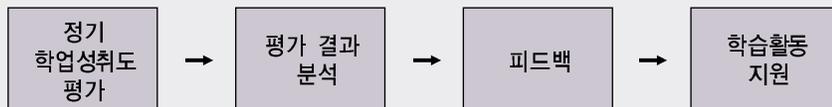
마산시청에서 교육경비(4,000만원)를 지원받아 경남대-창원대 사범대생을 멘토로 저소득층 및 뒤처지는 학생(27명)들에게 방과 후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라. 우정 멘토링

학급에서 멘토(우수학생)-멘티(뒤처지는 학생)가 짝을 이루어 학습활동 연중 실시

4. 학습 관리

가. 뒤처지는 학생의 학습관리를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나. 관리자, 운영담당자와 지도교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책임지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기대 효과

학교에서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을 통해 기초미달 학생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고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학교 '상'을 정립하며, 기초미달 및 학력격차 해소를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를 만들어 누구나 더불어 배우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멘토링제를 활용한 기초미달학생 구제

백 분 이
진해제일고등학교 교사

1. 멘토링 운영 과정

1. 대학생 멘토링제를 활용한 기초미달학생 구제

□ 목표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 학생들과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흥미, 자신감을 형성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인성지도 및 바람직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유도

□ 운영 과정

방학 중 귀향 대학생을 활용하여 기초학력을 향상하고자 교과관련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본인 희망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담임의 추천을 받아 무료로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멘토(대학생)에게 기초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본교 학생들의 실태에 맞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멘토링구성은 희망하는 학생들 중 지역이 비슷한 학생끼리 모여서 한 멘토에게 멘티 3명씩을 연결하여 8팀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세 번씩, 2시간씩 영어, 수학 중심으로 기초학력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2.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활용한 멘토링 운영

□ 목표

정규교원만으로는 학교실정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실시가 곤란하므로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운영하여 학력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학력을 신장시킴

□ 운영 과정

본교는 올해 하반기에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인턴교사 다섯명 근무하게 되어 인턴교사가 1학년 학생들 중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수, 목, 금 8교시에 교과기초반(5명으로 구성)을 운영하여 교과별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상담 멘토링 운영

□ 목표

학생-교사 상담 멘토링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상담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도모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고, 비행 예방하여 학력 향상시킴

□ 운영 과정

본교는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사 1인당 10명 내외의 학생을 상담 멘토링을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 인간적인 신뢰가 더욱 돈독히 형성되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중도 탈락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생활지도는 물론 인성교육, 가치관 형성교육, 예절 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여 성실한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세 함양과 학력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II. 멘토링 운영 결과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기초학력 33%,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67%였다. 그러나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멘토링제 운영을 통하여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보통학력 이상이 7.2%로 증가되었으며 기초학력미달은 37%로 매우 낮아졌다. 특히 국어교과의 보통학력 이상 달성률이 25%로 매우 향상되었다.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소에 공부에 자신이 없었던 학생에게 자신감을 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초/대/석



장 석 원
미즈유외과 원장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유방암의 증상과 치료



1. 유방암의 증상

유방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로 증상이 없습니다. 암이 진행되어 유방에서 만져질 정도가 되려면 최소 1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때는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라도 유방암 클리닉을 방문하여 정확히 유방암으로 진단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덩어리 혹은 멍울이 만져져도 아프지 않아 방치하거나 유방암 클리닉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치료의 적기를 놓쳐 안타까워하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외에 유방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변할 수도 있으며, 피부의 색깔이나 감각이 변하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여 유방도 보존하고 암도 완치하려면 정기적으로 유방암 전문 외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방법 뿐입니다.

통증이 없는 유방 멍울은 유방암의 가장 많은 증상으로 증상이 있어 내원한 유방암 환자의 약 75%가 무통성 유방 멍울을 이유로 내원합니다. 이는 유방의 조직에서 비정상적인 혹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방은 부위에 따라 단단하거나 부드럽게 만져질 수 있는데 단단한 부위를 멍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반대로 혹이 생겼는데도 유방조직으로 생각하여 병이 진행된 상태에 발견됩니다. 유방암의 멍울은 대개 통증이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커지게 되면 외부에서 보이거나 이차적인 유방의 피부나 유두의 변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유두 분비물은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호르몬의 이상이나 약물복용 등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양이 유관을 침범하거나 유관에서 시작한 암인 경우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비정상적인 유두분비의 5~10%에서만 유방암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거나 유관확장증과 같은 유방 질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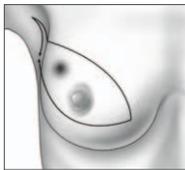
2. 유방암의 치료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수술후 보조적인 치료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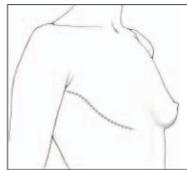
수술적인 치료는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병변의 외과적인 절제입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모든 환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수술 후 보조요법의 효과가 많이 입증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보조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합니다. 보조요법의 종류로는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이 있습니다.

1) 수술적 치료

유방암의 수술은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같이 시행합니다. 수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암이 있는 쪽 유방 전체와 유방암이 가장 전이를 잘 일으키는 겨드랑이 임파선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로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하며 국소적으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으로 거의 완벽한 수술입니다. 이는 넓은 병변으로 인해 유방 보존이 힘든 경우 시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술 방법은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암이 있는 부분은 완전하게 제거하되 남아 있게 되는 정상 부분의 유방을 그대로 살리는 수술로 유방 보존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도 겨드랑이 임파선은 함께 제거합니다. 남아 있는 유방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재발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대학병원의 유방암 센터에서 많은 환자에게 유방절제술과 유방보존술을 시행한 후 장기간 관찰하여 본 결과, 암 재발률이나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 두 수술 간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소가 적더라도 암이면 무조건 유방을 절제하였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알려진 후로는 조건이 허락하면 가급적 유방을 보존하려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방 전절제술〉



〈유방 보존 수술〉

유방 보존술식의 장점

- ① 유방모양이 조금은 작아질 수 있지만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② 유방이 없는 데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없습니다.

유방 보존술식의 단점

- ①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② 방사선치료 후 유방의 피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 경우,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경우, 즉 전절제술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 겨드랑이 임파선에 심한 전이가 있는 환자 등에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젊은 환자들이 미적인 면을 더 추구하지만, 재발률은 나이가 젊을수록 높은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유방 보존술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 ① 유방은 작는데 상대적으로 암 종괴가 클때 ② 암의크기가5cm이상일 때
- ③ 유방암 병소가유방내 여러곳에 흩어져 있을때 ④ 유방x-선 상에 미세 석회침착음영이 유방전역여러 곳에 나타나는경우
- ⑤ 방사선 치료를할 수없는 경우임신중 과거방사선치료 경력이 있는경우
- ⑥ 수술중 종괴 절제 후에 절제 가장자리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경우 ⑦ 근육이나뼈, 연부조직등의 결체조직이상질환을가지고 있는환자

2) 유방 성형수술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유방 성형수술을 하여 유방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유방절제술과 동시에 시행 받을 수도 있고 1~2년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방 성형수술 방법도 다양하여 복부나 신체의 다른 부분의 자기 조직을 옮겨와서 유방을 재건하는 방법이나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여 성형하는 방법, 혹은 수술 부위 피부를 단계적으로 팽창시킨 후 나중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성형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수술자에게 전해 주어야 하며 유방 절제술을 받기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유방암인 경우 유방 보존수술이 가능하지만 유방 보존수술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유방절제술과 동시에 유방 재건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이 용이하고 환자의 정신적 충격도 적으며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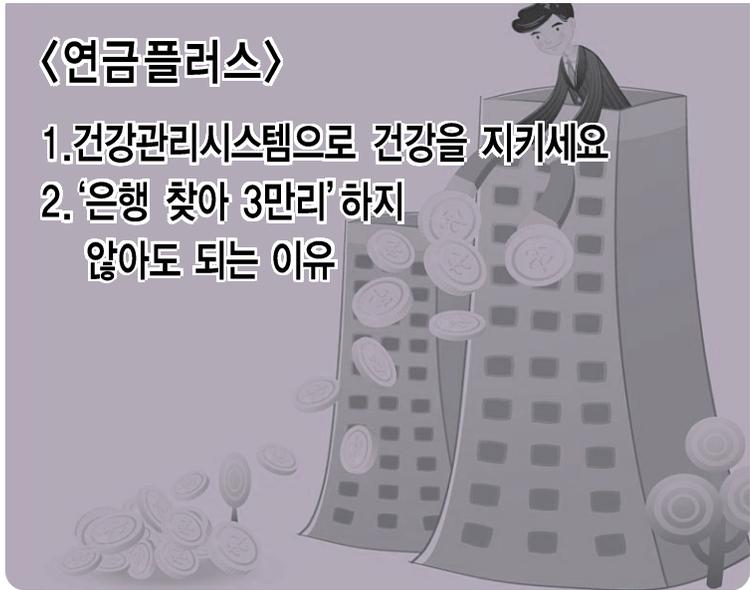
www.mizu.co.kr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이용

전/문/가/초/대/석

박진영
공무원연금공단

〈연금플러스〉

1. 건강관리시스템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2. '은행 찾아 3만리'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건강관리의 등대지기’ 건강관리시스템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공무원연금공단의 ‘건강관리시스템’이 여러분의 건강을 미리 챙겨드립니다.

건강관리시스템은 성인병 발병 위험성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자가건강진단’으로 위험성을 체크하고, ‘건강가이드’로 예방한다

‘자가건강진단’은 건강 나이를 비롯해 생활습관과 성인건강 등 57개 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만, 알코올 및 흡연 의존도, 피로, 스트레스 등의 생활습관 항목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은 물론 치매, 화병 등의 질환 등 성인건강 항목 진단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e-book으로 발간된 건강가이드도 만나보세요.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신장질환 등의 발병원인과 예방법을 담아 건강가이드로 엮었습니다.

지금 바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재해보상 홈페이지(좌측 중간) → 재해보상 제도안내(자가건강진단, 건강가이드)를 방문해보세요.

‘은행 찾아 3만 리’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연금·학자금대부 상환은행과 공무원연금 자금 수납은행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빛고를 광주에서 40년 쯤 살고 있는 박상환 님의 주거래은행은 '광주은행'입니다.
월급도, 공과금도 광주은행 통장에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던 박상환 님이 작년에 받았던 연금대부를 개별납부로 상환하려는데..
아니! 광주은행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별납부 상환은행이 몇 군데 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결국 개별납부가 가능하다는 농협에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연금대부와 학자금대부 상환은행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찾아 헤매지 말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으세요!

고객이 불편하면 공단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는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무원연금 자금 수납은행 추가

공무원연금 자금 수납은행이 확대됐습니다. 기관에서 납부하는 기여금과 부담금은 기존 국민, 농협, 우리, 우체국, 제일, 기업은행 등 6개에서 '신한, 광주, 부산, 전북, 대구은행'이 추가돼 모두 11개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기여금과 연계반납금 납부 금융기관도 국민·우리은행, 농협, 우체국에 '기업, 신한, 광주, 부산, 전북,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이 추가되며 10개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학자금 대부 상환은행도 확대

이와 함께 연금대부와 학자금 대부 상환은행은 4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국민, 농협, 우체국, 우리은행 외에 '신한, 광주, 부산, 전북, 대구은행' 연금대부와 학자금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CMS 계좌를 통한 개별납부 상환 시, 상환은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받는 통장과 상환하는 통장이 다른 경우 상환 가능한 은행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번에는 지방은행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이용은행이 확대돼 고객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3월부터는 수납·상환은행에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지금보다 더 가까운 은행에서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을 찾으려고 헤맸던 기억 모두 잊으세요. 앞으로는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이용하세요. 수납 가능한 은행이 더 많아지는 만큼 고객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동화와 함께 만나는 감상이야기



박 영 인

마산 감천초등학교 교사

1. 음악과와 국어과와의 통합 관련성

음악이나 다른 예술과목의 통합은 예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각각의 예술이 그 표현 수단이나 기법은 다르지만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심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요소를 찾을 수 있고, 그렇기에 통합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술계열 간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꾸준히 진행되어 온 흐름이라면 요즘에는 예술계열 뿐만 아니라 주지교과와 예술교과와의 통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발도르프 학교의 수업을 들 수 있는데, 발도르프 학교¹⁾에서는 음악과 동화, 동시를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다. 즉, 짧은 이야기나 동화를 통하여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거나 음악활동을 하게 하여 감정 발달기에 있는 8~14세의 학생들에게 수업의 여러 활동들이 이어지게 한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계열 간의 통합 뿐 아니라 음악교과와 주지교과와의 통합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과 국어 두 과목은 표현력과 창의력이라는 공통의 요구점이 있기에 통합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음악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인지적 영역만의 강조가 국어과와의 통합수업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영역을 균형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천과제 1 : 둘이 아닌 하나를 위해

가. 음악이 있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 1) 아침 독서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감상활동 전개
- 2) 이 달의 음악가 선정 및 코너 구성

1) 발도르프 학교는 최초의 '통합학교'로 1919년 독일의 남부도시 슈투트가르트에서 설립되었으며, 독일의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 1861~1925)박사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루돌프 슈타이너 학교라고도 한다. 교육과정은 1학년부턴 13학년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지학에 근거하여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발도르프 학교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언급될 때마다 대안학교의 대표적 예로 제시되고 있다.

나.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지도계획 수립 및 통합학습을 위한 이야기 자료 선정

〈표-1〉 동화(이야기) 자료

음악	국어	동화(이야기)자료
4. 소풍 [미뉴에트]	[말·듣(1학기) 둘째마당 - 2. 따뜻하고 너그럽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음악
7. 아리비아 춤과 갈대피리 춤	[쓰기(1학기) 셋째마당 - 2. 앞뒤내용을 이어	호두까기 인형
10. 시계 [아를의 여인]	[쓰기(1학기) 둘째마당 - 2. 따뜻하고 너그럽게	아를을 사랑한 프레데릭
13. 바둑야방울 [형기리 춤곡]	[읽기(2학기) 넷째마당 - 2. 소중한 만남	즐거운 집시음악
20. 동물의 사육제	[말·듣(2학기) 첫째마당 - 2. 알고싶어요	동물의 사육제

3. 실천과제 2 :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가.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 1) 연상 상상적 활동
 -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 2) 시각적 활동
 - 색깔느낌카드 및 악기그림카드로 표현하기
- 3) 신체적 활동
 -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 콩주머니 전달하기
 - 리본으로 표현하기



4. 얻게 된 일

음악 감상하면 듣고 적는 활동을 떠올리고 서양 고전 음악 하면 자장가처럼 따분하고 지루한 음악이라고 생각하던 아이들이 동화와 함께하는 감상학습을 통해 음악 속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위대한 음악가의 생활 자체가 음악으로 표현되기도 함을 알게 되면서 감상학습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자유 탐구 이해와 지도 방법



엄 성 욱

마산 중앙중학교 수석교사

자유 탐구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밖에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동료 학생과 협동으로 수행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고, 과학의 적성을 발굴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탐구로 규정할 수 있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차원에서 매 학년 최소한 6차시 정도로 ‘자유 탐구’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비판적 사고, 과학 글쓰기 능력 그리고 과학·기술·사회의 접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자유탐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유 탐구는 실험실이나 교실의 과학 실험, 시범 실험, 사고 실험, 조사, MBL 등이 있고, 학교 밖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유 탐구는 PBL, 사례 조사, 현장 조사, 견학·실습, WBI 등이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한 탐구에는 ICT, 토의, 협동 학습, 연극·역할 놀이 등이 있다.

자유 탐구의 지도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탐구를 수행하게 하거나 마음 맞는 동료들과 소집단을 이루어 탐구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협동학습 방법들 중 ‘집단 탐구(Group Investigation : GI)’ 방법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데, 집단 탐구 방법은 주제 선정, 탐구 방법, 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유 탐구의 취지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집단 탐구(GI)는 학생들에게 넓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이미 정해진 지식이나 기능 습득보다는 여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 분석, 종합하는 통합적 학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집단 탐구(GI)는 학생의 능력, 나이, 시간제한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6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1단계는 주제 선정 및 소집단 구성으로, 큰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소 주제를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고, 이들 소 주제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범주화 한 뒤에 같은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소집단을 구성한다. 소집단의 구성은 3~6명 정도로 하고, 특정 소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하되 성별, 능력 등에서 이질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선택한 과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계획을 세운다. 이때 지도상 유의점은 누가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부터 완수한 팀 과제를 발표할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결론 도출 등 탐구 실행 단계이다. 학생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론을 도출한다. 각 구성원은 맡은 일을 수행하고 아이디어를 교환, 토의, 명료화하고 종합한다.

4단계는 최종 보고서 작성이다. 구성원들이 해당 팀에서 알아낸 핵심 내용과 보고할 내용, 발표할 방법을 결정한다. 작성하는 최종 보고서에는 탐구한 주요 아이디어와 결론 그리고 정보와 자료의 출처 및 수집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단계는 최종 보고서를 학급에 발표하는 단계이다. 발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되, 강의 형태는 지양한다. 발표는 시청각 자료, 전시 자료, 표현 활동, 퀴즈, 토론 등의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평가 단계로서 탐구 주제와 절차의 과학성 및 창의성, 동기 유발 수준과 참여 정도, 발표 방법의 창의성 등을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탐구를 수행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앞으로, 교수 방법과 수업의 진행에 있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유연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교과별 학습할 내용의 목록을 주지시켜 특정 교과에서 편중된 사고와 학습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확장된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함이다.

수업에도 흐름이 있다.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풍부한 사고와 감성이 수업 매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듬뿍 전달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하이라이팅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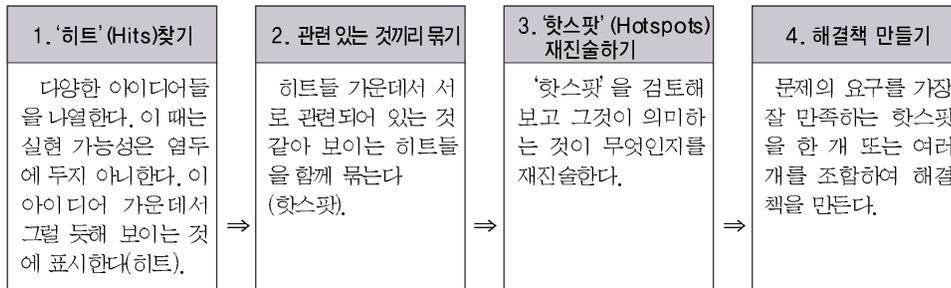


고 이 현

창원 대산초등학교 교사

‘하이라이팅’ 기법은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기본적인 몇 개의 집단(범주)으로 압축하여 분류하기 위한 수렴적 사고도구이다. 이 기법은 먼저 직관에 따라 유망해 보이는 대안들을 확인해 낸다. 이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대안을 생각해 내기 위해 발산적 사고기법(브레인스토밍 등)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들 대안들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어떤 공통적인 주제 영역으로 조직화한 다음 조직화된 결집에 명칭을 붙여 창의적인 대안을 만든다.

1. ‘하이라이팅’ 기법 들여다 보기



※ 주어진 주제의 성격에 따라 해결책 만들기 단계는 생략될 수도 있다.

2. 기본다지기

주제 :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찾기

구분	아이디어 나열하고 히트 찾기	분류하기	재진술하기(해결책찾기)
적용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샴푸 쓰지 말고 비누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화용품 등을 아껴 쓰기,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재활용하기 종이 필통대신 천필통 쓰기, 자기가 쓴 책이나 헌 옷 등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등	▶경제적 방법 : 샴푸 쓰지 말고 비누쓰기, 필통대신 천필통 쓰기, 자기가 쓴 책이나 헌 옷 등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사회적 방법 : 가까운 길은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기 ▶방어적 방법 : 샴푸를 쓰지 말고 비누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까운 길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 병 만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개발담당 장학사

■ 변경 전 내용

○ 평가 시행 개요

학년	교과	범위	시간	기간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등학교4~6학년 과정	교과별 40분	10월
중학교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학교 1~3학년 과정	교과별 70분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	고등학교1학년 과정	교과별 70분	
	전문계			

■ 변경 내용

○ 평가시기 조정 : 10월 ⇒ 7월

- 평가시기를 7월로 조정, 2학기동안 개별 학생에 대한 보정교육 기간을 확보하고, 방학중 채점으로 수업결손 문제 해결

○ 고교 학년조정 및 과목축소 : 고1(5개교과)⇒고2(3개교과)

- 평가시기가 7월로 변경됨에 따라, 고교평가 대상학년을 고2로 조정하여 적정 평가시기 확보
-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고교는 선택중심 교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평가과목을 기초교과영역인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로 축소

○ 중·고 교과단위 평가시간 조정 : 70분 ⇒ 60분

-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단위 평가시간도 현행 70분에서 60분 수준으로 단축 조정하여 학생들의 평가부담 완화

○ 학교별 성취수준 '학교 알리미' 공시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평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3조와 부칙 3조 제2호

○ 시행일 : 2010. 01. 01.

■ 문의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분석과 ☎ (02)2100-6488
-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268-1186, 초등교육과 ☎ 268-1116

학교경영성과평가 실시

■ 변경 전 내용

○ 우리도교육청의 각종 평가 현황

평가명	평가 대상	비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 교감, 교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학교평가	공·사립 유·초·중·고	
사립학교경영평가	전 사립학교·학교법인	
직무성과계약제	4급(상당)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성과관리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전 직원	

○ 우리도교육청 학교장 평가 : 없음

■ 변경 내용

○ 평가 실시 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지방공무원(행정실 직원)
- 대상기간 : 매년 3. 1. ~ 익년도 2. 28.
- 평가시기
 - 상시평가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된 자료 상시입력
 - 집중평가 : 매년 12. 1.~12. 31.(만족도 조사 및 경영성과 자료 시스템 입력 평가)

○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 총괄

기관평가(학교경영 평가)	정량평가
개인평가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	기관평가
	개인역량평가
	개인공통평가
	가감점

- 기관평가 : 항목별 지표별 평가 비율 부여(100%) ⇒ 항목 및 지표 개발 시
- 개인평가 : [기관평가+개인역량평가+개인공통평가=100%]+가감점 = 총점

○ 평가 결과 적용시기

- 교장, 교감 : 2010년 적용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 행정실장 : 2010년 적용
 - 그 외 지방공무원 2011년 적용

○ 평가 결과 활용

- 상위 2% 내외의 해당자에게 승진 및 자격연수지명 우대, 전보 및 전직시 선택권 부여, 각종 연수시 우선지명
- 하위 2% 내외의 해당자에게 교장중임배제, 승진 및 자격연수 지명 불이익 조치, 하향 전보
- 평가대상자 전원 : 성과상여금 지급자료,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학교경영성과평가 계획(교육정책담당관-2856, 2009. 12. 7.)
- 시행일 : 2010.3.1.

■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 ☎ 268-1092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만큼 달라집니다!



김 명 희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지난 2009년 12월 23일에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교육과정이 새롭게 고시되었다. 당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선진교육체제를 구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들여 기초연구 및 공청회와 심의회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인데, 2009년에 개정되었다 해서 공식적인 명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운다. 이번에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정이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가. 현행 교육과정의 진단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7차 교육과정, 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6월에 발표된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은 2010학년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의 도입 등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던 교육과정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7차 교육과정보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아직도 경직된 모습을 띄고 있어 교육수요자의 관심과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이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모든 교과활동이 모든 학년과 학기에 고루 배분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 탓에 학생입장에서는 하루에 6~8과목, 한 학기에 10~13과목씩 이수해야 해서, 학습부담은 크고 학습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교원의 수업시수 조정용으로 전락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의무교육기간과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과의 불일치에 따른 공통교육에 대한 책무성 문제와 함께 고등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폭이 제한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나.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

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진화되어야 하며, 때로는 시대를 앞서거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경쟁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지식이 쏟아지고 그 많은 지식이 순식간에 처리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학습경험의 '양' 보다는 '질' 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되고 다변화되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선은 기존의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로 정해지는 틀을 벗어나 학년과 교과간의 경계를 허물어 줌으로써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1학년 학생도 수준이 된다면 2학년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성격이 유사한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통합된 교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하거나, 유사 교과목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업시수를 조정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나 교사가 제공해주는 시스템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학생이 어떤 시스템을 제공 받아 얼마만큼의 학업성취를 달성했는지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꼭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과목을 억지로 듣고 있다가 학업성취 기준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이수가 인정되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는 교과목 이수트랙을 스스로 정하고, 해당 교과목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사와 교실을 찾아가서, 학업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받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국가나 교육청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현장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군과 학년군,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하고, 학교에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을 허용하여 교과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고,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강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등도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의 재설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의무교육기간과 일치시키면서 명칭을 ‘공통교육과정’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턴 3학년까지 2년간이었던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어졌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되었다. 선택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부턴 적용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학교 선택과목에 ‘진로와 직업’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교과목별로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개설된 각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최대한 존중하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진로, 과정 등을 감안하여 배당 시수의 일정 비율(20% 범위 내에서)을 증감하여 타 교과에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에 비해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의 경우 국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씩 줄이고, 수학 시간은 주당 1시간씩 늘려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목별 수업시수 증감 운영 허용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최소수업시수’ 개념 대신에 ‘기준수업시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학교 단위에서 각 교과목의 이수 시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흥미,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집중이수나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의 실시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특정 교과목의 경우는 오히려 학기나 학년을 연속해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현행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은 2개 영역(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은 5개 영역(자치, 적응, 봉사, 계발, 행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국가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은 특별활동과 내용 간 중복이 있거나 체험 중심 요소가 약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그 운영이 형식적이고 교원의 수업시수 조정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교과 외 교육활동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영역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설정하고 그 운영시간도 초·중학교에서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것과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마. 학생 진로 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고교 전체 학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하고, 64단위를 '학교 자율과정'으로 설정하여 진로집중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과목을 새로이 신설하고 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도 중학교의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직업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준에서 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 등 학생들의 진로 관련 교육과정을 중점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공통교육과정으로 설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별 수업시수의 증감 운영, 중학교의 선택과목 결정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이 국가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전체 학년이 선택교육과정으로 설정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를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 교

육과정 운영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학생이 3년간 자신이 이수해야 할 모든 선택과목을 결정·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3년간의 과정(이수트랙)을 구안하고 신입생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는 공통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대신에 교과(군)별 필수 이수단위만 지정(일반계 고의 경우 116단위)하고 있으며, 필수 이수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64단위에 대해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보통교과의 과목 신설권 및 전문 과목 편성권도 부여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바. 기타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연계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돌봄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돌봄 활동은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및 보육기능과 연계하여 운영되는데, 이를 위한 교육청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학습부진아, 특수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강조한 점도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대적 요구와 사회상을 반영한 주5일수업제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의 주제로서 기존의 35개에 더하여 녹색교육과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을 새로이 추가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및 적용 시기

가.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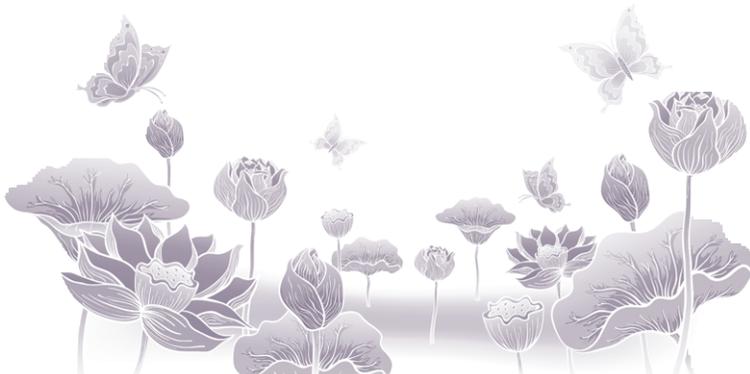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이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자율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타율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학교에서는 시수증감의 내용과 방법, 집중이수 운영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사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관리자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가 단위학교라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연수와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교과군 및 집중이수제 운영을 통해 학기당 이

수과목수를 8과목 이내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정 기준 제시를 통해 운영의 가능성과 자율성을 열어준 것이고, 구체적인 실현 및 효과를 거두는 일은 고스란히 학교의 몫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관행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과목 이하로 편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의 교과별 교원 상황과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희망을 고려하다보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줄이는 일보다는 늘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학습부담은 줄이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기회는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과정 적용 시기

학년도	2006개정 교육과정(수학, 영어) (학교급별 동시 적용)	2007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연차 적용)	2009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동시 적용)
2009	초 1, 2 / 중1 / 고1	초 1, 2	
2010	초 3, 4 / 중2 / 고2	초 3, 4 / 중1	
2011	초 5, 6 / 중3 / 고3	초 5, 6 / 중2 / 고1	초 1, 2 / 중1 / 고1
2012		중 3 / 고2	초 3, 4 / 중2 / 고2
2013		고 3	초 5, 6 / 중3 / 고3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글 쓰는 순서
1 학년말 업무
2 학년 초 업무 계획
3 업무결재 관련
4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
5 출결 및 전출입
6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7 학적관리(유예, 연제, 정원외)
8 각종 누가 기록 관리 1
9 각종 누가 기록 관리 2
10 기록부 정정 대장
11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활용

학년 초 업무 처리

NEIS

앞서 2월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교무업무시스템의 학년 초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한 관리

가. 소속학교 변경

▶ 인사이동에 따라 사용자 가져오기를 통해 학교의 변경이 완료되었지만 결재라인에서는 소속학교가 이전의 학교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로그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사용자 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나. 시스템 자료 권한 등록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권한부여 후에 시스템 자료 권한을 등록해야 했지만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교육과정]-[답답편성 및 교과개설]-[답답교사편성]에서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해당 학년반과 페이지 권한이 부여됩니다.

2. 학교정보 설정

- ▶ 교무학년도 / 교무학기 - 현재 교무학사 일정상 진행 되는 학년도
- ▶ 수업학년도 / 수업학기 - 현재 수업 학년도



[학년말 업무처리 순서]

3. 편제 및 교과

가. 교과편제 자동 등록

- ▶ 초등학교 편제에서는 교과가 동일하므로 먼저 자동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한 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나. 창의적 재량활동 편제

- ▶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 창의적 재량활동에 시수가 등록되어 있으면 하위편제에 시수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합니다.

4. 학사일정 관리

가. 학교행사 등록

- ▶ 공제일 구분란은 수업일수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 ▶ 삭제할 경우 학교행사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 합니다.
- ▶ 학교행사가 학사일정에 사용된 경우나 전국공통코드인 경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5. 담임편성 및 교과개설

가. 담임교사 편성

- ▶ [학교교육과정] - [담임편성 및 교과개설] - [담임교사편성]에서 담임편성을 등록합니다.

나. 담당교과 개설

- ▶ 전담교과의 경우 교사별 담당교과 개설에서 전담교사와 함께 담임교사도 한 번 더 등록을 해주어야 학기말 성적처리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6. 시간표 관리

- ▶ 교사의 필요나 학사일정과 관련하여 당일의 시간표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별시간표 편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 ▶ 기초시간표 반영은 학년, 학급별로 자료권한이 있어야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반영시작 날짜는 학기별 시작일로 반영끝 날짜는 학기의 마지막 날로 입력하면 되고, 6학년은 졸업식 날짜까지만 반영합니다.
- ▶ 결보강 자료가 입력된 날은 시간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시

대 변화에 따른 해외파견 한국교육원의 새로운 시도 및 과제

-일본 치바(千葉)한국교육원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윤 유 숙

일본 치바한국교육원 원장

치바한국교육원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14명의 선임 교육원장들이 한국어교육을 위해 전력을 질주해 왔으며, 전임 원장들의 내실 있는 교육 방침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운영 방식이 진화를 거듭한 결과, 각각의 시대별 상황에 부응하는 한국어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다만, 시대가 흘러 '반공'을 최고 가치로 여기던 국가적 이념은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치의 척도가 변화하였고, 21세기를 맞은 작금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리더 그룹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다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일본 내 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또한 조금씩 변화해 왔으나,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일본 사회에 있어 더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눈여겨 볼 것이 바로 조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오던 한국어 학습의 '당위성' 부분인데, 부모세대로 내려오면서 '필요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다가 현재에는 '선택' 과목 정도로 가치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잘잘못의 논의나 책임 소재 규명 등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 할 문제라고 판단되며, 다만 시대 흐름에 따라 현재의 일본에서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2월 최연소이자 첫 여성원장으로 치바한국교육원장에 부임되어 지난 3년간 앞만 보면서 달려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곤 한다. 현지인들에게 있어,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친근한 일상으로 보급함으로써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한일 양국 간의 풀뿌리 외교의 토대를 쌓는 베이스캠프로서의 소규모 다기능 기관으로 교육원을 재정의(Re-Definition)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시작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원의 H/W 및 S/W 재정비에 힘을 쏟았다. 즉 ‘작은 개혁’의 첫 번째 시도로, 하드웨어적인 교육환경의 대폭적 개선을 실행했다. 20여년 전에 설치한 LAB시설물은 사용할 수도 없으면서, 책상을 포함하여 바닥에 붙박이로 연결되어 있어 높은 칸막이로 연결된 고정식 좌석을 수강생의 책상으로 대응하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쾌적하고 자유로운 수업 환경(수업마다 특성에 따른 자유로운 좌석 이동 배치)을 위한 특별 예산을 본부와 대사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교육원 하드웨어의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시행, <열린 한국어교실>로 진일보 할 수 있게 되었다.



<LL교실의 공사 전 · 공사 기간 · 공사 후 현재 모습>

또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재정비를 시도했다. 교과목의 양적 확대를 시도하여 수강생들의 수요의 다양성에 부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면 관계 상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원장 1인에만 의존한 교육과정(원장 1인 20시간)이었으나 민단 산하기관인 치바한국학원장님과 각 민단 지부를 돌며 설득한 끝에 외부강사 3인을 더 고용하여 각 지부들에 한국어 강좌를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토요일한글학교의 개선이다. 대상 아동 확대 및 강사 확대에 따른 클래스 재편성, PTA의 정례화로 의견 수시 반영 및 학부모들의 관심 고조와 적극적 참여, 자체 교재 제작, 새천년 체조 소개 및 실습, 경인교대 글로벌 멘토링의 첫 일본지역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향후에도 차세대 주역이 될 자녀들이니만큼 이 사업은 더욱 애착을 가지고 확대시키려고 한다.



둘째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교육 내용의 질적 내실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소프트웨어의 충실화를 위하여 수강생의 능력별·흥미별 클래스를 좀 더 세분화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교수법 등의 질적인 향상이 부수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없는 일과성 개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으로,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였다. 먼저 개인지도 방식 도입으로 일기, 숙제 등을 한층 강화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육을 지향했고 시청각 교육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최근 개봉한 화제의 영화 및 드라마, 휴먼 다큐멘터리 등을 분기 당 2회 이상 학습 교재로 활용했다.

이러한 수요 예측을 통해 기획적으로 신설한 것이 또한 K-pop교실이다.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강좌인 셈인데, 2007년 4월 개설 이래 총 120여곡의 한국 노래를 가르쳐 왔으며, 가사에 나오는 주요 단어 및 표현 등을 중심으로 쉽고 재밌게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라 할 수 있다. 가사뿐 아니라 가수 또는 곡에 얽힌 에피소드와 뮤직비디오 등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음악 자체가 가진 흡인력으로 인해 치바교육원의 개설 강좌 가운데 한국어 학습의 몰입도가 가장 큰 클래스 중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한편, 치바교육원에서는 정기적인 문화 행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 또는 예정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한국어 탄생 배경 특강], [한·일 문화비교 특강], [한·일 문화 관련 자유토론] 등으로, 강사는 원장을 비롯하여 관동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기 실시 또는 계획 중에 있다.



이 밖에, 치바현 한국어 강사 연수, 국제교류(방일 한국 교사들과의 만남, 수학여행으로 방일한 고등학생들과의 교류회, 한국문화체험 연수 등)를 실시하여 수강생들에게 한국어 공부에 있어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관리이다. 부임 직후의 치바현 한국 유학생회는 한일 이공계 학부 유학생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반쪽짜리 유학생회라는 내외부로부터의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는 상태였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치바대학을 중심으로 사물놀이팀을 결성하도록 교육원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비용 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학생 구성원의 편식 없이 아우를 수 있는 전체 틀이 마련되어, 작년 초 정식으로 <치바현 유학생회>가 발족되기에 이르렀고, 교육원장의 자격으로 동 발족식을 주선하였다.

재일본 한국교육원은 재일 동포의 민족교육 기관으로서 처음 설립되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왔으나,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일본에서 대다수의 한국어 강좌 수요층이 일본인으로 전환된 현실에 맞추어, 교육원은 그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최초로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校舍)로 지어졌던 건물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기능이 수명을 다한 후, 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평생학습 시설로 유익하게 재활용되는 사례는 오히려 현재의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원 역할의 재정립 차원에서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바람직한 교육원의 모습으로, 재일한국인을 위한 유소년기 교육 강화 및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현지 일본인도 포함한 성인반 교육 강화라는 가시적인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상기의 양축을 중심으로한 재편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붕어빵 같이 모두가 똑같은 학교교육은 이제 그만!



오진환

마산 봉덕초등학교 교장

01



I.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100% 활용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교육의 경쟁력 부재, 무너지는 공교육’ 등의 말은 이제 그리 어색하지가 않다.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교가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도 공교육을 불신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다보니 교과별 정해진 시수 때문에 학교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2010년, 국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권력적인 관여를 줄이고 학교에 일정한 자율을 주는 학교자율화 정책을 전면 시행하였다. 이는 지역의 실정,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특색이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02



II. 봉덕 가족 모두의 선택, 독서·논술 교육!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2009학년도 본교의 학교교육평가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가장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독서·논술 교육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2010학년도 교육과정 자율운영 및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육과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논술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논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는 국어 문제의 대부분이 지문 속에 그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 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수학과에서는 숫자로 되어 있는 단순 연산 문제는 잘 풀지만 문장으로 된 문제는 전혀 풀어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는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

여 글 속에서 정보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열쇠를 독서·논술 교육에서 찾기로 했다. 독서는 단순한 읽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해력과 사고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모든 교과와 기초학력 신장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올바른 독서·논술지도는 학생들의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III. 초빙교사 채용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 활동

보통 초등학교에서의 독서·논술 교육은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거나 아침 독서 시간 또는 특별활동 시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논술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모아졌다. 이에 본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자율화 방안의 일환인 초빙교사 채용 제도를 활용하여 독서·논술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독서·논술 교육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학생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국어전공교사를 학교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을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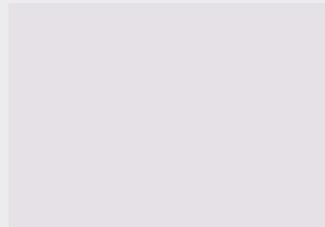
2010학년도에 본교에 채용된 초빙교사는 국어과 전담을 맡아 차별화된 독서·논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3~6학년을 책임 지도하게 되었으며 1~2학년의 독서·논술 교육 자문교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사서교사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도서관 운영과 국어전담교사의 창의적인 독서·논술 행사 운영으로 201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고 경쟁력 있는 봉덕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V. 증감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국어과 시수 증배

독서·논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어 전담 교사 및 1~2학년에서 담임교사가 지도해야 할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의거한 증감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졌다.

본교의 증감교육과정은 증배된 시수에 비해 감축이 적은 증배 중심 유형으로 증배된 시수는 분산하여 편성하였으며, 증배 시수는 교과 간, 교과 내의 통합을 통한 시수 감축이나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시간(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주수와 교육 내용 분량 선정 기준 주수의 차이 시간)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처럼 보다 강화된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실성 있게 재구성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봉덕 가족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윈윈전략인 셈이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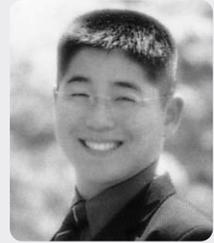
학년	독서·논술 교육 필요 시수 (전달 시간)	국어과 증배 시수	독서·논술 교육 필요 시수 확보 방안		
			국어과 교육과정 내 탄력적 운영 시간	시수 증배 방안	
				다른 교과 탄력적 운영 시간	재구성을 통한 시수 감축
1	30	20	10	14	6
2	30	10	20	3	7
3	39	20	9	18	12
4	38	27	11	10	17
5	55(1학기 2시간)	40	15	25	15
6	58(2학기 2시간)	40	18	19	21

V. 학교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손에 달렸다

학교자율화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추진되어졌다. 2010년 학교자율화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자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각층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교사가 있다. 국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권력적인 관여를 줄이고 학교에 일정한 자율을 주었고 이제 남은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실천자인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자율화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앞으로 학교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년 후 나에게 보내는 약속 - 졸업식



하 재 설

진주 예하초등학교 교사

2010년 2월 10일 농촌 소규모 학교인 예하초등학교의 졸업식은 타임캡슐을 든 담임선생님을 선두로 부모님의 손을 잡은 학생들이 하객들의 박수세례를 받으며 입장했다. 부모님과 학생들은 모두 단상으로 차례대로 올라 '꿈'이란 모양으로 만든 촛대에 불꽃을 피우며 졸업 의식을 알렸다. 전교생 77명 중 23명 졸업, 재학생의 삼분지일이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기 위한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20년 후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강보성,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이재범, 소설가가 되고 싶은 전현정, 한식요리사가 되고 싶은 이현아.” 20년 후 자신의 꿈과 이름을 담임선생님이 부르면 한 명씩 차례대로 단상으로 올라가 교장선생님께 졸업장을 받고 총동창회장, 운영위원장 등 여러 단체장들과 악수를 나누며 내려왔다. 학기 초부터 꿈이 한번도 바뀌지 않은 학생도 꿈이 수차례 바뀐 학생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꿈을 향한 의지가 총명한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졸업장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에듀넷·스코피의 무상지원 앨범 속표지에 붙여 항상 졸업앨범과 함께 들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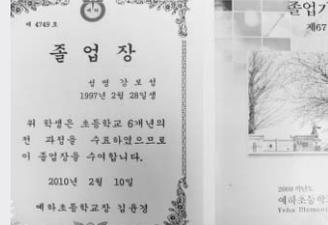
다음으로 학교장상과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본교는 12월초 졸업사정심의회에서 외부 시상을 지양하고 졸업생 전원에게 품성과 적성을 고려한 학교장상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급식지원아동을 우선 고려한 사정순위에 의해 14명의 학생에게 총140만원의 외부 장학금을 수여했다. 학교장상의 부상은 상장명과 수상자의 사진을 넣은 '나만의 우표'가 주어졌다. 국화(國花) 옆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 자신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란 취지로 제작되었으며 졸업생 모두에게 돌아갔다.

졸업식의 가장 빛나는 상은 6년 개근상이다. 3급 청각장애인 학생이 17명의 대표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을 때 항상 다른 학생과 똑같이 수업을 받도록 요청한 어머니의 눈시울은 이미 젖어있었다. 흑자들은 아파도, 재미없어도, 싫어도 미

01



02



03



01 꿈 촛불 점화

02 졸업장과 앨범

03 학교장상-나만의 우표



련하게 앉아 있으면 준다며 비판하는 상이 한 어린이에게는 유년시절 동안 그런 고통마저도 참고 이겨낸, 자랑스럽게 키워온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장상과 장학금에 더불어 교사들이 준비한 작지만 특별한 선물이 졸업생에게 전해졌다. ‘현정이가 쓴 소설을 읽으며 밤을 꼬박 새워 보고 싶구나. 항상 밝은 네 모습을 보면 선생님도 즐거웠는데 꿈을 이룬 현정이가 10년 후 선생님 앞에 나타났으면! - 담임 선생님이’, ‘15년 뒤 어느 날 제자가 아닌 후배 교사로서 같은 자리에 있는 은영이 모습을 기원할게. - 전담선생님이’……. 전교생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작은 학교의 교사들이라 책갈피 속에 꿈을 이루기 위한 격려의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 잠깐 옛 시절을 추억하고 선생님의 격려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을 담은 선물은 대표에게 전해진 후 교실에서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졌다.

본교 졸업식에서 축사와 격려사, 송사와 답사의 광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졸업생의 지난 담임교사와 현재 교직원들의 축하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했다.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중학교 진학 후에도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영상 속 옛 담임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과 현재 계신 분들의 화이트 셔인 말씀에 웃음을 터뜨린 학생들도 있었다. 행사는 점점 희비가 교차하는 가슴 뭉클한 의식이 되어 무르익어갔다.

“우리 처음 만났던 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 놓기가 두려워 망설였지만…….” 노랫말을 따라 부르던 어린 재학생들의 울음이 터져 나오고 끝끝내 마저 부르지 못하는 졸업생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이제 다시는 초등학교생으로 교정을 밟을 수 없는 아쉬움이 수상의 기쁨보다는 크지 않았으며 한 동안 화창했던 날씨가 아침부터 흐려진 것 역시 학생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듯 했다.

슬픈 날씨로 인해 운동장에서 치를 ‘꿈 풍선 날리기’와 ‘타임캡슐 봉인식’은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꿈을 적은 리본을 헬륨풍선에 묶고 창밖으로 날려 보



04

04 꿈 풍선 날리기



〈타임캡슐 봉인〉

내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외쳤다. 타임캡슐에는 ‘20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애장품을 각각 한 개씩 넣어 상자에 담았다. 애장품으로는 야구공, 가족사진, 직접 만든 장식품 등이 있었는데 게임을 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게임 인증키가 담긴 USB를 넣은 학생도 있었다. 담임교사는 제자들에게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한 동심은 잃지 말라는 뜻으로 그림동화책 한 권씩을 선물했고 졸업생들과의 기념촬영을 끝으로 예비중학생들을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냈다.

본교의 졸업식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지역단체 등 졸업생들의 학교생활 동안 함께한 모든 이들이 졸업을 축하하고 진학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업무량이 많은 농촌 소규모 통합학급의 졸업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졸업식의 주인공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향한 소임과 약속을 다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05



05 졸업식 전경



스프링 팍스 산양 (Spring Fox Goat)



조 경 래
김해 장유중학교 교사

산양의 종류 중 스프링팍스라는 종족이 있다. 이 산양의 특징은 뼈를 지어 무작정 달리다가 절벽에 떨어져 집단 자살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외에도 자살을 하는 동물이 있다는데 흥미를 가진 어느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리 속에 끼인 산양들의 맨 선두는 좋은 풀을 찾아 앞으로 내달리고 뒤에 있는 산양은 앞에서 달리니 덩달아 달리고, 중간에 끼인 산양들은 뒤에서 밀어 대니 힘에 밀려 달리고 그러다 보니 무리중의 대부분은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무작정 달리다 보니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예상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달리기만 할 뿐이다.



난데없이 스프링팍스산양(Spring Fox Goat) 같은 보기 드문 희귀 동물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요즘 진학시즌을 맞은 일선 학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학교마다 2학기가 되면 이른바 진학시즌을 맞아 상급학교 진학 준비와 상담이 한창인데 상급학교 진학 절차를 앞둔 학생, 학부모, 담임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스프링팍스산양이 우리 인간과 흡사한 면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든다.

중학교에서 제 나를 선두에 선 무리들은 특목고라는 유행에 따라 뛰어 다니고 고등학교에선 이른바 SKY(S대 K대 Y대) 혹은 미국 동부 명문대 아이비리그(Ivy League) 등을 향해 뿔박질이고 그리고 그 뒤의 대부분 학생들은 앞서가는 무리들이 만든 유행과 시류에 따라 무작정 달리는 무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선두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두 뚜렷한 목적의식과 장래설계가 있을까? 이른바 선두 그룹에 속한 학생들도 자신의 소질, 능력, 적성 같은 것은 뒤에 생각할 문제이고 대부분의 학생은 시대흐름, 부모의 희망,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 등이 요구

하는 대로 무작정 달려가고 있음이 문제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이라는 S대의 일부 특정 인기학과 외에서는 전체 수석이 나오지 않는 것이 증명한다.

국가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은 이미 오래 전에 상실하였고 이러한 풍토에서 자라나는 학생, 학교 그리고 학생을 둘러싼 교사나 학부모 같은 성인 당사자들의 그릇된 관념이 만들어낸 환경은 국가의 장래인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보배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따라 처신하지 않고 시대흐름에 따라 자신의 인생관과 철학을 수시로 바꾸어 행동하는 오늘 날의 많은 성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학생에게 큰 거부감 없이 적용되고 있음은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몇달 전에 있었던 수능, 그리고 그 뒤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상급학교 진학절차, 이 속에서 또 다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목적 없이 달리는 스프링팩스산양이 될런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오늘 퇴근길에 어려운 대화로 진학상담을 하는 어느 젊은 담임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를 보고 문득 스프링팩스산양을 떠올렸다. 발걸음이 무겁다.





좀 더 밝은 사회 공동체를 희망하는 소박한 바람



신 영 하
밀양 밀성초등학교 학부모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는데 마침 내원하던 원생중 7살짜리 아이 하나가 등원하자마자 다리를 절뚝거리며 휘청거리는 자세로 교실에 들어왔다. 어디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아이는 히죽 웃으면서 ‘유치원에 오던 길에 어떤 아저씨가 절뚝거리며 걷는 걸 봤는데 그걸 흉내내봤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아이에게 장애인은 그렇게만 보였나 보다. 나는 학부모로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이에게 비친 장애인 아저씨의 절뚝거리는 모습은 그저 장난스럽게 흉내낼 대상으로밖에 안되는 것이었다면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거다. 아차 싶었다.

그날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그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나머지 원생들에게 장애인의 어려움과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줬다.

그리고 나는, 일전에 모 사회단체가 실시한 장애 체험 행사를 떠올려 봤다. 그 행사는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이 계신 곳에서 진행됐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남자 화장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든 미션이 있었다. 담당 선생님께서 남자 1줄, 여자 1줄씩 서라고 해서 눈을 감은 상태로 나가는데 누구 등에 부딪치고 땅을 짚으며 복도로 가서 앞사람 어깨를 잡고 출발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앞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다시 돌아오는데 앞문으로 들어가다가 누구랑 박치기를 했다. 그리고 실수로 한 사람의 얼굴을 때려버렸다.

이어서 오른손 장애를 가정해 왼손으로 글씨를 써보니 정말 글씨가 엉망이었다. 글씨를 입으로 썼는데 왼손으로 쓴것보다 더 난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거기다가 입에서 침도 줄줄 흐르고 더러웠다.

그 때 느끼는 바가 컸는데, 막상 유치원 아이의 행동을 보니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너무 게으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부터, 일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초등학교에 올려 보내기전 원아들에게 장애체험 교육을 의무 교육과정으로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져 왔던 차였기에 그날 유치원 원장님께 장애인 체험교육을 시켜보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다. 그러자 원장님도 좋은 생각이라며 당장 계획표를 짰다.

그리고는 실행에 옮겼다. 아이들에게 휠체어를 구해다가 직접 타거나 끌어주며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을 올라보게 하고, 목발을 짚게 해봤다. 아이들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이를 지나다 넘어지고 힘들어 했다. 목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보조용구가 아니니 아이들에게는 버거울 수 밖에 없었다.

또 시각장애인 체험때는 TV를 보면서 눈을 가리게 했다. 아이들은 내용만 들릴뿐 영상을 못보니 매우 답답해 한다. 역시 귀를 막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상토록 해 시켜 주지만 이번엔 영상만 보일 뿐 음성이 안들리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들어했다.

유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가정 아래 발에 붓을 끼워 그림을 그리게 해봤더니 킁킁대며 힘들어 하고, 5분도 못 버티며 물러났다. 물론 그림은 말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와 함께 장애의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도 배운 시간이었다.

짧은 몇시간만의 체험교육이었지만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장애인을 보면 앞으로 동네의 친구 언니 누나로 생각할거라고 한마디씩 했다.

우리 경상남도 관내는 물론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다. 어린아이때부터라도 이런 편견을 씻을 수 있도록 장애체험 교육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때부터 한 두번 정도 시켜봐줬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우리사회 전체가 좀더 밝은 공동체 사회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 엄마



홍 대 형

김해 진영대흥초등학교 5학년

“아들, 사랑하는 엄마아들!”

언제나 엄마는 날 이렇게 부르신다. 가끔은 낮간지럽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는 엄마가 좋다. 우리 엄마는 언제나 바쁘시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뭔가를 챙겨주신다.

“사랑하는 엄마 강아지들,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어서”

이런 웃기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얘들아, 손발은 씻었니? 가방은 챙겼니? 준비물은? 숙제는?”

가방 속에 들어갈 모든 것을 한 번씩 물어보신다.

우리 엄마는 학교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신다.

선생님께서 콩을 팔이라 하시면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이다.

3월이 되어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엄마의 이런 잔소리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시지 않는다. 언제나 바보상자라 하시면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근데 난 잘 모르겠다. 나도 어른이 되면 그럴까? 지금은 마냥 재미나기만 한데.

우리 엄마는 책을 많이 보신다. 언제나 책 속에 길이 있다하시면서, 우리들 몸은 계속 자라나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머릿속 생각은 자라지 않는다고 하신다.

요즈음은 그런 엄마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엄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라 하신다.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공부도 재미나게 즐기면서 하라 하신다.

가끔은 늘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귀찮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우리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내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우리 엄마가 난 참 좋다.

지금도 울 엄마는 자기는 백설 공주가 아니라 뱃살공주라 하시면서 고민 중이시다.

이런 우리 엄마가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아이의 사생활’을 읽고



정 정 규

마산 진동초등학교 교장

2008년 2월부터 EBS에서 방영된 ‘아이의 사생활’이란 다큐멘터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심리학 분야를 실험과 증명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교사나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나 역시 그 방송을 보고 장면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아이들 교육에 대해 전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방송이 끝나고 얼마 후 ‘아이의 사생활’이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 1위로 서점에 자리잡고 있을 때, 영상으로 흘러가버린 방송의 기억들이 다시금 손에 잡히는 감흥을 느끼며 책을 샀고, 책갈피 한 번 꽃을 틔도 없이 책을 읽어 나갔다.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남과 여, 그들의 차이’, ‘다중지능, 나만의 프로파일을 찾아서’, ‘도덕성, 작지만 위대한 출발’, ‘또 하나의 경쟁력, 자아존중감’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에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두 흥미롭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교육과 관련지를 만한 내용을 간추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시작은 인간의 ‘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뇌’의 특징, 영·유아기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뇌’의 발달단계, ‘뇌’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처럼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초등학교 시기의 다양한 학습과 경험이 청소년기 때 겪는 변화의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고, 이렇게 형성되어 확립된 자아 정체감이 한 사람의 완성된 인격체의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제를 제시했을 때, 왜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성실히 수행하고, 교실에서의 수업 및 생활 태도도 여자 아이들이 훨씬 좋은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의 두 번째 내용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남자가 왜 여자와의 말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가사일을 도와주려 하면 꼭 잔소리를 들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었다. 이 장에서는 여자와 남자는 뇌 구조상 차이가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상호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한 최적의 학습법이 제시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는 뇌의 발달 과정에서 뇌의 사용범위가 다르며, 따라서 같은 과정을 수행해도 서로의 관점이나 관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다중 지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 뇌의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I.Q라는 단일 요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드너의 공간, 언어, 음악, 논리, 신체, 자기이해, 대인관계, 자연 친화론 나누어지는 다중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중 지능의 요소 중 몇 가지만을 강점 지능으로 보유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지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켰다. 다중지능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중지능 트레이닝을 통해 강점지능을 살려 약점지능을 보완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특히, 외국의 다중지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업, 파드 수업, 플로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점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언급한 내용은 도덕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착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 사회가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결과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서글픈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밀그램의 전기충격기 실험이나 이 책에 제시된 아이와 성인의 실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도덕성은 언제나 권위, 보상, 이기심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도덕성에 대해 지도할 때 아이들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도덕성이 아이들의 성공을 좌우할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Walter Mischell) 박사의 만족 지연 연구인 ‘머시멜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욕구를 자제하고 참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도덕성이 높고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학습 성취도 또한 높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옮겨가는 단계로 아동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 학급 규칙을 적용하는데 교사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해야하며, 부모와 교사의 도덕성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도덕성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 장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성공을 경험해온 아이와 실패를 반복해온 아이는 자존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또래 집단에서 주도적이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동료들에 대한 공감능력도 뛰어나다. 자존감은 변화할 수 있으며, 성공과 칭찬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발달한다. 우리는 성인의 눈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아이들 입장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성격을 바꿀 수도 있고, 지나치는 경험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260개의 뼈와 4~6ℓ의 혈액, 2㎡의 피부, 약 500만 가닥의 털과 6~7kg의 지방 649개의 근육과 10만km의 혈관 등이 필요하며, 심장 1개, 폐 2개, 신장 2개, 위 1개, 간 1개, 6~7m의 소장, 손톱과 발톱 10개씩, 머리의 일부인 눈, 코, 귀, 입술, 치아 그리고 뇌까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전 세계 66억 7,000만 명의 인간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실에 앉아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같은 책걸상에서 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모두 다른 생각 주머니들이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바르게 사고하며, 그들의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책 전반에 걸친 내용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지만,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이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나의 교육 철학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물(四物)에서 사물놀이를 찾다.



박 미 향
김해 부곡초등학교 교사

1. 사물놀이의 유래

사물놀이의 유래를 말하기 이전에 풍물놀이의 기원부터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원시 시대의 농경의 역사와 더불어 제천의식을 거행하면서 굿을 해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 이러한 민족문화가 제대로 숨쉬지 못하게 되고, 근대화 운동으로 굿의 모든 행위자체가 미신으로 낙인 찍히고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되자, 1970년대 남사당패에서 사라져가는 굿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보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풍물놀이이다.

사물(四物)이란 본래 불교 용어로서 법고(法鼓), 대종(大鐘), 목어(木魚), 운판(雲版)의 네 악기를 지칭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네 가지 연장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팽과리, 징, 장구, 북 이상 4가지 악기를 사물(四物)이라 하고, 그 네 악기로 연주를 하거나 상모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놀이'라고 하여 '사물놀이'라 하게 되었다.

지금은 보통 명사로 쓰이고 있는 '사물놀이'는 1978년 2월 김덕수와 세 명의 남사당 후예들이 전통 풍물의 음악적 소재를 실내 무대에 맞게 재편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새롭게 생겨난 연주단체를 일컫는 '고유명사'이다.

2.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

사물놀이와 비교하여 풍물놀이는 여러 사람이 춤사위와 발림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형태이며 규모도 커서 흥겨움과 신명을 안겨준다. 또한 갖가지 진 풀이와 다채로운 가락을 연주한다. 반면에 사물놀이는 네 사람이 앉아서 일정하게 짜여진 무대의 틀 위에서 각 지방의 풍물가락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가락을 엮어 연주하는 형태이다.

3. 사물놀이의 음악적 특징

첫째, 금속악기와 가죽악기의 대립과 조화이다. 사물놀이는 팽과리, 징, 장구, 북 등의 4개의 악기가 연주를 하는 음악이다. 이 중에서 팽과리와 징은 금속악기이고 장구와 북은 가죽악기이다.

금속악기와 가죽악기의 소리의 특징은 상당히 다르다. 금속악기는 센소리가 나며 울림이 적다. 가죽악기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며 울림이 크다. 이 금속악기와 가죽악기는 상호 대비와 보완의 관계에 있다. 징은 장단의 첫째 박을 쳐주어 끊어주며, 팽과리와 장구는 잔가락에 변화를 주며, 북은 여백을 메꾸는 동시에 기본 박을 채우는 특이한 구실을 한다.

둘째, 긴장과 이완의 원리이다. 긴장이라는 것은 가락이 빠르고 세다는 의미이고 이완은 느리고 부드럽다는 의미이다. 긴장과 이완의 원리는 작게는 한 장단 내에서 또는 한가락 내에서 크게는 사물놀이의 짜임새 자체가 그 원리를 구현한다. 가령, 굿거리 한 장단 내에서 ‘치고, 달고, 맺고, 푸는’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 장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이다. 같은 장단의 같은 가락을 맺고, 다른 가락으로 이어가는 것이 사물놀이의 전체적 전개이다.

즉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의 가락을 긴장과 이완이라는 원리로 재배치했다는 것이다.

4. 사물놀이의 연주곡목

사물놀이의 연주곡목은 놀이패에 따라서 또는 앓은 반, 선반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며 또한 어느 지역의 풍물을 도입하였는가에 따라 곡목이 달라진다.

첫째, 우도굿은 호남지역 가운데 주로 평야지대인 이리, 김제, 전주, 정읍, 고창 등지에서 연행되던 풍물놀이 가락을 다시 짠 것이다. 우도굿은 장구가락이 발달되어 있고, 가락자체가 구성지고 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 일대의 풍물놀이를 다시 짠 것으로, 풍물놀이의 전국적 판도를 웃다리와 아랫다리로 지칭하던 관례에서 말미암은 용어이다. 이 장단은 짹짹이 가락, 허튼 가락, 길군악 7채, 자진가락, 짹드림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갈채를 받는 것은 원래 호남 좌도 풍물굿에서 유래한 짹드림이다. 이것을 웃다리 풍물의 끝에 배치한 것이 오늘날 탄성을 자아내게끔 하는 백미가 되었다.

셋째, 경상도에서 전승되는 농악을 영남가락이라 하는데 사물놀이 공연에 맞도록 구성한 것이다. 영남지방의 농악에는 진주 삼천포 농악, 함안 농악, 아미 농악과 같은 경남농악이 있고 빗내농악, 비산농악, 차산농악과 같은 경북 농악이 있어 그 특성이 약간 다른데 그 가운데에서도 진주 삼천포 농악을 응용한 것이다. 곡의 구성은 길군악, 반길군악, 빠른 길군악, 맺음가락, 겹맺음가락, 별거리, 달거리, 덧뵈기, 벽구놀이, 쌍진풀이, 맺음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땅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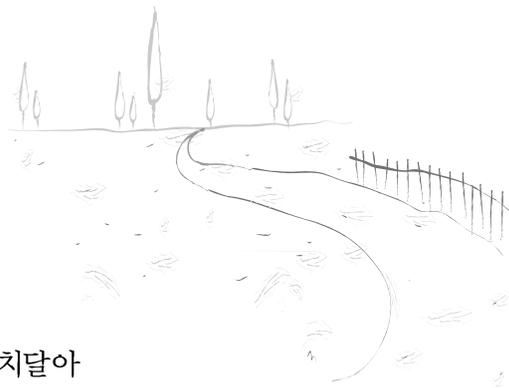
간간한 내음에
한가로움 가득 갯마을
누구라도 넉넉잡아 열싸안고
세상살이 나누다 고즈넉이 드러누워도 좋을 浦口

난바다 휘적휘적 햇발 달음질 거리낌 없는
땅끝, 點點 섬들 징검다리 놓으면
지구 몇 바퀴 돌아도 숨소리 거칠 리 없어
마음은 먼저 저 멀리 달음질치고.....

한팔 슬땀 내리뻗어 한라봉
손끝에 닿을 듯 곱닿을 듯
디딤돌에 모듬발 뽕만큼 키워보면
대마도도 그 너머 보이겠지

안쓰러움에 서성서성 돌아서는 발걸음은
남령*을 자박자박 소백을 거쳐 백두대간으로 치달아
끝머리, 천지 한 아름 품어 백두산
그 너머의 대륙으로 가자는데.....

오금마다 얼어붙을 찌렁대는 호통
바람도 조각내는 거침없는 활시위 소리
하늘도 숨죽일 듯 말발굽마다
들려오는 勝戰譜에 병사들의 함성
대륙을 어루더듬던 바람소리로 실려와
귓가를 맴 도는지.....



*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의 삼산면(三山面)·현산면(縣山面)·북평면(北平面)·옥천면(玉泉面)에 걸쳐 있는 산의 연봉, 해남산맥·두륜산맥 또는 남령산지라 일컫는다

沈 義 芳

- 현 중앙초등학교 교장
- 경남문인협회 회원
- 창원문인협회 회원

강둑 에서

저미는 그리움이
강물로 흐르다가

천만길 깊어져서
노을로 다시 타면

분분히
흩어지는 봄,
또 어찌란 말인가.



이 동 림

- 한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 계간 「새시대 시조」신인상으로 등단
- 진주시조시인협회 회원
- 진주문협 한국문협 회원
- 백민 동인

도시가 부럽지 않게, 우리도 마음껏 배웁니다!

도시가 부럽지 않게,
우리도 마음껏 배웁니다!

“ 내일 저는 과학발명대회에 나갑니다.
 제 씨궁은 다음 주에 도시에서 열리는
 영어말하기 대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시골에 살아도 좋은 선생님들과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

배움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으로
 나의 즐거운 공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보석처럼 펼칠 수 있는 나라
 내가 사는 대한민국 교육의 오늘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교육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 힘이 더 커지고 강해지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